

5만불자 연등행렬 '장엄'

여의도 봉축대법회 결음마다 '인류문명 선도' 서원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세상'을 기원하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여의도 광장에서 5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해암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경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스님, 진각종 지광 총리원장, 대한법회총대 총무원장 등 각 종단 대표와 권익현 국회의원, 박찬중 전신민당 대표, 전 일본 불교회 대표, 직할교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법회는 명고 명종을 시작으로 관불 현향 현화한다. 대가사 회생사에 대한 묵념, 예불 정근 축원문 봉축사 법어 초파일송가 발원문 기원문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해암스님이 대독한 이날 법어에서 조계종정 원하스님은 "생명의 존귀함을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는 법어를 내렸다.

봉축사에서 월주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체득하여 청정수행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비원력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오늘에 계승하고 미래의 인류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자"고 말했다.

법요식에 앞서 4시부터 식전행사로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의 법패, 48개 연합합창단의 합창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부처님 오신 날을 한층 장엄했다.

축단 점등식을 시작으로 기념행사의 막을 올린 봉축위원회는 5월1일, 2일 가곡 찬불가 경연대회와 1천여명이 참석하게 될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개최하며,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청소년 수계법회, 외국인 노동자의 밤, 각종 위문법회 및 봉축법요식 등 20여개의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충북 조공법회등 열여섯 지역·단체기관장들을 초청, 조공법회를 갖고 6일 오후 7시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제등행렬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암연 법요식 수원시 사암연법회는 지난달 29일 매산국민학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수원지역 30개 사암주지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통령 383사찰에 연등 김대통령은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383개 사찰에 봉축연등을 달고 1만5천여 사암주지스님과 신행단체대표들에게 봉축사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불교신도회(회장 광정출의)는 4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충북 조공법회등 열여섯 지역·단체기관장들을 초청, 조공법회를 갖고 6일 오후 7시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제등행렬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암연 법요식 수원시 사암연법회는 지난달 29일 매산국민학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수원지역 30개 사암주지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통령 383사찰에 연등 김대통령은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383개 사찰에 봉축연등을 달고 1만5천여 사암주지스님과 신행단체대표들에게 봉축사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불교신도회(회장 광정출의)는 4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충북 조공법회등 열여섯 지역·단체기관장들을 초청, 조공법회를 갖고 6일 오후 7시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제등행렬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암연 법요식 수원시 사암연법회는 지난달 29일 매산국민학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수원지역 30개 사암주지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통령 383사찰에 연등 김대통령은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383개 사찰에 봉축연등을 달고 1만5천여 사암주지스님과 신행단체대표들에게 봉축사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불교신도회(회장 광정출의)는 4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도심 밝힌 평화의 탑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자비광명의 탑이 지난 27일 시청앞에서 점등식을 하고 있다. 평화의 탑은 오는 8일까지 속진에 피든 도시민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준다. <박재원기자>

여성불자 사회봉사 앞장

보현행원단 지난 21일 창립 본격활동

교계안팎으로 불자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불자들의 자원봉사단체인 보현행원단(회장 심혜민)이 지난달 21일 오후 7시 국제호텔 연회장에서 창립됐다.

60명으로 구성된 보현행원단은 그동안 강원도 소적새마을, 교도소, 감호소 등지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와 복지시설에서 각종 봉사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5일 서울·인천지역 노동보시 6일 현행법회 등을 펼친다. 특히 지방별로 제등행렬에서 오체부지 및 우솔차지결의를 한다.

해외서도 봉축 "열기"

美·加·獨등 불교단체들 일제행사

해외 전법 현장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열기가 뜨겁다.

미국 북미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6회 국제퍼레이드가 7일 맨하탄 유니온스퀘어 파크에서 열린다. 미국내 15개국 사찰 2천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될 이 퍼레이드는 봉축법요, 법문, 독경에 이어 펼쳐진다. '인류평화, 전쟁없는 세계' '인류 한가족의 이상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퍼레이드에는 한국 12개사찰이 참여한다.

캐나다 주재 26개국 불교승가회(회장 양일스님)도 합동 봉축법요식을 7일 오후 5시부터 토론토 시청앞 광장에서 봉행한다. 기념사와 축원, 축가로 펼쳐지는 법요식에 이어 국회의사당까지 제등행렬로 이어진다.

한편, 온타리오 연합봉축위원회는 봉축 포스터 부착, 일일찾담 등을 통한 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독일의 사찰에서도 봉축법요가 이어진다. 보문사는 7일 오후 3시 베를린 불교협회 법당에서 법요식을 갖고 13일에

는 각안스님 초청법회도 가질 계획이다. 종지사는 7일 오전 11시 베를린 법당에서 법요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 뜻을 현지 신도들과 함께 기린다.

이밖에도 독일 내의 대만 스리랑카, 베트남계 사찰들도 13일부터 21일까지 각종 법회와 세미나등 기념식을 갖는다.

주하는 원광대 대불련 출신으로 구성, 오솔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스스로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아 지역불교 신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승가대 개편' 내달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통해 조계종 교육원 주최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가 지난달 25일 총무원 4층 회

대구 포교지단 출범

조계종 전국포교사단 대구지단이 지난 22일 오후 2시 대구 보현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 지단장에 무공스님(동화사 주지)이 추수 부지단장에 조종성 포교사가 선출되었으며 지단 세칙도 토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불련 포교주간 선포

6일 현행법회 등 열여섯 지역·단체기관장들을 초청, 조공법회를 갖고 6일 오후 7시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제등행렬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암연 법요식 수원시 사암연법회는 지난달 29일 매산국민학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수원지역 30개 사암주지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대통령 383사찰에 연등 김대통령은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383개 사찰에 봉축연등을 달고 1만5천여 사암주지스님과 신행단체대표들에게 봉축사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불교신도회(회장 광정출의)는 4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원광대 출신 한의사들 '금강의료봉사회' 결성 원광대 대불련출신 한의사들이 지난 15일 '금강의료봉사회(회장 우정순)'를 결성, 지난 23일 청주 금강회관에서 첫 무료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1백여명의 청주 주민에게 따뜻한 의술을 베푼 금강의료봉사회는 청주 지역에 거

주하는 원광대 대불련 출신으로 구성, 오솔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스스로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아 지역불교 신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승가대 개편' 내달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통해 조계종 교육원 주최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가 지난달 25일 총무원 4층 회

주하는 원광대 대불련 출신으로 구성, 오솔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스스로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아 지역불교 신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승가대 개편' 내달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통해 조계종 교육원 주최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가 지난달 25일 총무원 4층 회

의실에서 열려 지방승가대 개편에 관한 논의를 6월 세미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인사 송광사등 16명의 강주 및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강원'명칭도 세미나를 통해 변경토록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원 예산에 편성된 지방승가대 지원금은 교육지원비와 감사연구비, 학술논문집 발행에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교육원 회의에 일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승가대 교재 전과목을 재편집 교재의 통일성을 기하고 번역문을 추가하기로 하는 한편 치문과 사지에 대한 번역과

주해를 하기로 하고 비교종교학은 내년 4학년 과정부터 강의하기로 했다.

초파일 화재 주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식과 촛불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만해도 부산 소재 2개 사찰에 불이 나 법당이 전소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냈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각 사찰과 협력해 화재예방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국 각 사찰도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 운집한 불자들의 얼굴은 맑고 따사로운 하늘빛처럼 평온해 보였다. 5시, 봉축 법요식이 시작되고 곧 이어 대구가톨릭대 불교대학을 위한 묵념이 있었다. 잠시 숙연했던 몇 분이 흘러가고 행사는 차질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바로 전날 대구에서는 1백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있었다. 여의도 법요식은 은 은 국민의 아픔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인재(人災)가 있

라는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니 즉석에서 참사 사상자 들기 성금을 모으는 법회후 한 열 캠페인 행사가 있었다더라면 부처님 오신 의미를 한층

금을 전달하고, 천도재를 올려 주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뜻밖의 사고로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항사 유족들을 위한 돕기에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법자들이 적극 나서서 것이 통채대비를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의미며,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한결 뜻깊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아쉬움 남긴 법요식장 되새기는 뜻 깊은 봉축대법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각 종단과 대구지역 사찰에서 참사가 일어나지마자 위로

적극 나서서 것이 통채대비를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의미며,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한결 뜻깊게 보내는 일일 것이다.

여름엔 시원하게/겨울엔 따끈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목화 게르마늄 온돌침대

어버이날 맞이 30~20% 효도세일

1995. 4. 28~5. 7 (10일간)

건강에 좋은 온돌입니다.

원적외선 Bio 목화 게르마늄 온돌침대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몸에 좋다는 게르마늄, 온돌침대. 그 건강효과가 사용자의 입에서 입으로, 현대 과학으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르마늄은 NK세포와 식암세포를 증강시키며, 먹는 산소라고 불리기도 하며, 원적외선 작용에 의한 혈액순환 개선에서 안마, 찜질효과로 인한 피로회복 촉진, 온돌바닥에 의한 허리건강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목화 온돌침대로 바꿔보세요. 더이상 건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전화주시면 안내서 및 샘플릿을 보내 드립니다.

목화 온돌침대

필필방

(02)208-7974/5, 209-6378

부산 (051)412-9351, 416-0807

목화 온돌침대 대리점모집

전통과 신용의 상징 목화가 지사 및 대리점주를 모집한다.